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유명하다. 헌혈을 하고 있는 스님과 신도들.

‘대형 도심사찰 성공비결’ 기획시리즈를 마치며

철저한 교육·실천이 ‘황금열쇠’

현대불교가 창간 10주년 기획 시리즈로 두 달 간 취재·보도했던 특별기획 ‘대형 도심사찰 성공비결’이 한마음선원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구룡사, 능인선원, 부산 삼광사, 안국선원, 한마음선원 등의 장점을 포

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번 시리즈는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여섯 사찰들의 성공비결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사찰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취재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점검해 보았다.

구룡사



구룡사는 특히 문화를 통한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운영하는 유지결 극단 ‘신시’의 대표작 ‘맘마미야’의 공연 모습.

#6개 사찰 닮은 점,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6개 사찰들은 공통점이 있다. 철저한 교육과 수행풍토,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수행패턴, 생활불교 지향, 주인의식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요소를 가운데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체계적인 교육이었다. 양질의 신도교육이 결국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셈이다.

-문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이다. 이들 사찰의 신도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이 더 공부해야겠다는 욕구를 불러 일으키면서 자연스레 수행으로 연결되고 있다. 봉사활동이나 사찰 일에 적극적인 것도, 불자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것도 따지고 보면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결국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음선원이나 구룡사의 경우 어린이·학생·청년회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몇 십 년이 지나면 이들이 바로 든든한 재목들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구룡사가 ‘요양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 아래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교육의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능인선원, 안국선원의 경우 정밀로 교육이 엄격하다. 입교절차도 까다롭고 공부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능인선원의 경우는 ‘신도사관학교’라는 별칭이 붙었고, 안국선원은 집중수행 등의 초심자과정을 거쳐야만 신도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신도들은 오히려 이런 것을 좋아한다. 어떤 신도들은 가족과 주위 사람들까지 끌어 들인다. 이런 불자들은 당연히 많은 것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사찰들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점도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한다.

#시대흐름을 잡아라

-사실 대부분의 사찰들은 타성에 젖어있다. 자기 색깔을 찾지 못하고 있고, 불자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은 자주 변하고,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흐름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 6개 사찰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점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연구하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안국선원이 성공한 이유는 수행열풍의 시대조류를 반영하고, 또 일반인들이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간화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마음선원 역시 자율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시대흐름에 맞는 수행과 수행체계를 갖춘으로써 역동적인 사찰이 될 수 있었고, 능인선원의 경우도 불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과 신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효했다.

#기복에서 작복(作福)으로

-한마음선원의 경우 생활 속의 불교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신도들은 생활 자체를 공부로 삼고 있다.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바로 보는 노력을 하면서 깨달음에 접근하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수행도 기복이 아니라 철저히 ‘작복(作福)’에 초점이 맞춰진다.

-나머지 5개 사찰들도 한마음선원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영남불교대학이나 구룡사, 능인선원 등도 실천을 강조한다. 신도들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대부분의 사찰들이 기복을 받았거나 조장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절에 와서 복을 빌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을 지을 것인가를 절에 와서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것이다. 요즘처럼 많은 정보를 갖고 시대흐름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바른 불교’가 통한다.

#높은 자긍심과 주인의식

-6개 사찰 취재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신도들의 자긍심이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엘리트 의식’이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도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찰, 그리고 불교를 신앙하고 있다는 데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아마도 철저하고 체계적인 교육 덕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이 모든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행과 수행에 더 열심인 이유도 이런 요소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이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한 단계가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된다.

-스님과 신도들 간의 신뢰도 무척 높았다. 보통 스님들이 일일이 지시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신도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스님들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잘되는 집안은 어른들이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처럼, 이들 사찰들도 주지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이 신도들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항상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특화된 영역을 개발하라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일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요소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번에 소개된 6개 사찰들 역시 한 두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적어도 어느 한 분야에서만큼은 내로라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절에 와서 무엇인가 배우고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얻는 것이 없다면 절대로 오지 않는다. 좋은 절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계 때 있고, 그러다보면 인기상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복적 요소를 배제하고 ‘정법’에 근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복적 요소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모르지만 그런 신도들은 오래가지 않고 사찰 이미지도 나빠진다. 성공한 사찰들이 정법에 의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6개 사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그대로 흡수하려는 의미가 아니다. 각자 환경에 맞게 변화시켜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즘 사회에서도 벤치마킹이 유행하지 않는가. 사찰 규모가 작다고 해서, 도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시적이 반이다. 정라=한명우 기자

기획취재팀 : 한명우(팀장) 천미희(부산주재), 박봉영, 김철우, 김은경, 배지선(대구주재) 기자

능인선원



능인선원 불교대학에서 강의 듣고 있는 불자들. 국회원, 기업 임원, 언론인, 교수 등 오지 않는 리더들이 이곳에서 공부했을 정도로 거사불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안국선원



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안국선원 신도들. 안국선원은 간화선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수행의 모임을 깊이 느끼게 해준다.

제38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

개요

- 1. 일 시 : 불기2548년 12월 18일(토)17:00 ~ 19일(일)15:00
2.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경북 경주주재)
3.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교원
4. 주 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5. 슬 로 건 :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정진하여 바르게 지도하자!
6. 예상인원 : 300명
7. 연수참가비

Table with 5 columns: 구분, 미리접수, 당일접수, 제주도·울릉도·군중별, 해외거주자. Rows include 기본반, 구연 동화 등 활용한 교구 제작, 개인별 발표를 위한 과학놀이, 어린이법회에 활용한 상담, 레크리에이션.

* 입금하신 참가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재료비 포함

- 8. 지 금 품 : 연수자료집,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드세움 출판)
9. 개인준비물 : 필기구, 간편한 옷
10. 접수방법 : 본 회 홈페이지 www.dongja.org 또는 전화 (051)864-4569, 457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일정표

- 공통과정
<특강> 교재·교구에 부처님 마음을 담자 지운스님 권승희(장, 동양방송TV 강사)
화합 한마당 이성훈 전제이벤트
천불가와 율동 정 유 탁 종정소리
어린이를 위한 선기공 정여스님 분회회장, 여어선원장
기본과정
참선 이론 및 실수 원철스님 대한불교조계종교원신도국장
기본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최 미 선 우래나라이 어린이집장
부처님 말씀을 담은 프로그램 만들기 이수경 동국대 불교 아동학과 교수
심화 과정
구연동화를 활용한 교구제작 박 서 영 동화구연강사
재미있는 법회를 위한 과학놀이 조 오 근 경명심 고등학교 교사
어린이법회에 활용할 상담 정 옥 부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레크리에이션(법당놀이/미당놀이) 이 성 훈 전제이벤트 실장

대한불교조계종교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www.dongja.org TEL. (051)864-4569, 4570 FAX. (051)864-4665

(재)선학원 중앙선리연구원 채용 공고

근현대 한국불교의 산실인 재단법인 선학원의 전통을 계승하고, 선학원의 21세기 도약을 이끌어 갈 인재(연구원)를 모집합니다.

- 자격 불교학(한국불교사) 박사과정 수료 이상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위증명서 1부

- 전형방법
1) 1차 : 서류 전형
• 제출기간 : 11월 17일(수) ~ 12월 4일(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개별접수, 우편에 한함

우편접수 및 서류제출처 재단법인 선학원 총무과 110-240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40번지 ☎(02)734-9654 ~ 6

- 2) 2차 : 면접
□ 기타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는 12월 6일까지 개별통보를 해 드립니다.
• 면접은 12월 15일 실시됩니다.

재단법인 선 학 원